

이홍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사실상 최정명 국무총리로 끝나게 된 이완구(65). 이제는 고인이 된 성완중(64·전 경남 기업 회장). 그리고 시인이자 스님이었던 만해(萬海) 한용운(1879~1944).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충청남도 출신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 위대한 인물 만해를 뜯김없이 이들과 함께 엮는 까닭은 무엇인가.

뛰어난 서정성과 더불어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모르는 이는 없을 터. 한국 시 최고의 정신성으로 표상되는 '님의 침묵'이 나온 지 100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그의 시가 이상한 패러디로 떠돌게 되리라는 사실을 만해 자신은 혹여 짐작이라도 했을까?

"님은 갑니다. 아아 사랑하는 회장님은 갑니다./ 뇌물 메모를 남기고 벗꽃나무 숲을 향하여 난 황천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갑니다./ 천년만년 나랏돈 빼먹자던 정치인들과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돈봉투의 추억은 거북들 운명의 지짐(指針)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진 '님의 침묵'을 패러디한 시다. 패러디(parody)란 '잘 알려진 원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낸 건가

작을 비틀어 풍자적으로 익살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문학적 표현 형식이다.

'님의 침묵' 패러디 또한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읽는 이로 하여금 슬며시 웃음 짓게 한다. "그들은 향기로운 님의 돈봉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뇌물에 눈멀었습니다./ 뇌물도 사람의 일이라 받을 때에 미리 타질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폭로는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증거에 자꾸 오그라듭니다."

운명의 지짐 돌려놓은 거짓말

이 패러디 시를 읽다 보면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당혹스러워 했던 이완구 총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는가. "우리는 받을 때에 타질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타질 때에 다시 빼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갖지 마는 나는 뇌물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치가들의 거짓말을 못 믿는 민초들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듭니다."

그렇다. 이 총리가 끝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정치인들에게는 껌 값도 안 되는 고작 3000만 원의 돈

때문이라 아니라 거듭되는 거짓말이 그의 거대한 운명의 지짐을 돌려놓고 만 것이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해명 과정에서 했던 몇 번의 거짓말 때문에 끝내 낙마했던 것처럼.

사망하기 전 성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의 실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특히 성 회장이 인사의 '비타 500' 증인이 나오면서 이 총리는 더욱 궁지에 몰렸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까지 사퇴 요구가 확산됐다. 사면초가(四面楚歌)에 고립무원(孤立無援), 결국 이 총리는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전 정권을 향해 쓴 화살이 궤도를 이탈해 현 정권의 심장에 꽂힌 셈이다.

망자(亡者)의 폭로가 '양심'의 발로였는지 '양심'을 품은 복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총리는 끝없이 말을 바꿨고 그의 해명은 믿을 수 없었다. 말이란 한 번 내뱉으면 주위 답을 수 없는 법이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법. 그의 잇단 말 바꾸기는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 지적에 그는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고 답변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전혀 친분이 없다며 펼쳐 뛰더니 1년에

200차례가 넘는 통화 송수신 기록이 나오자 한 달에 한두 번 만난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다. 전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더니 비타 500 박스에 현금 3000만 원을 담아 전달한 정황 증거가 드러났다.

한동안 '성완중 사건'을 희화한 한시(漢詩) 형식의 글이 인터넷에 떠돈 것도 그 때문이었다. "경향일면에(卿香湓面崖)/ 폭탄투하내(爆彈投下耐)/ 비타오백이(七打熬白理)/ 완구보내내(完極步乃奈)" 으하하, 경향신문 1면에 폭탄이 투하되고 비타오백이 완구를 보냈더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계속되는 현 정부 '총리 잔혹사'

이 한시의 또 다른 재미는 한문을 그대로 번역해도 그런대로 말이 된다는 점이다. "벼슬의 향기 얼굴 끝까지 넘겨줄렀고/ 폭탄이 떨어졌어도 견뎌냈지만/ 비수 같은 한 방이 하얀 국무총리 북아대어/ 완전한 시신으로 절여 나가니 이를 어찌할꼬"

'1도 2부 3백 4톤'이라는 말이 있다. 사고가 터지면 우선 도망이 상책이요, 둘째는 그러다 잡히면 부인(否認)하고, 그 다음엔 '뺨'이나 돈을 써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위공무원이나 해당되는 말이다.

정치인들의 경우 사고가 터지면 첫째도 부인이요 둘째도 부인이다. 처음엔 딱 잡아떼다가 "돈 쓴 사람을 모른다" "알긴 하는데 만난 적이 없다" "만나긴 했지만 돈 받은 적 없다" "돈을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이 난무한다. 거짓말은 눈덩이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진다(마틴 루터)고 했다.

이 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처럼 그도 처음엔 성 회장과 그다지 친분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계속되는 거짓말은 한때 대통령까지 껴뚫던 그의 야망을 한순간에 꺾고야 말았다. '거짓말은 꽃을 피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스페인 속담)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낸'(死孔明走生仲達) 격이라 하겠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는 있다. 또 몇 사람을 오래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잔혹사'는 언제까지 계속되리나.

결혼 안해도 너무 안한다

지난해 혼인율 역대 최저...전년보다 1만7300건 감소

초혼연령 男 32.4세·女 29.8세...황혼이혼 10% 증가

지난해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건수도 2004년 이후 가장 낮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였다. 이혼 증가 추세도 여전했고, 특히 50대 이상의 '황혼이혼'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14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혼인 10년 만의 최저 수준 =지난해 혼인건수는 30만5500건으로 전년보다 5.4%인 1만7300건 감소했다. 2004년(30만86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로 국제적인 혼인율 비교수치인 조(粗)혼인율은 6건으로 전년보다 0.4건 줄었다.

이는 1970년 조혼인율 통계를 산출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세, 여자는 2.3세가 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돌



파한 뒤 최근에는 30대 초반으로 완전히 이동한 모양새다. 여성 초혼연령은 지역별로 이미 서울(30.7세)과 부산(30.3세), 대구(30세)에서 30세를 넘겼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3천300건으로 전년보다 2600건(10.2%) 줄었다.

◇'황혼이혼' 10.1% 증가 =지난해 이혼은 11만5500건으로 전년보다 0.2%인 200건이 증가했다.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2.3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인 유(有)배우 이혼율도 4.7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6.5세, 여자 42.8세로 전년보다 각각 0.3세, 0.4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4.9세, 4.7세가 상승했다. 이혼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4.3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해 2.3년 늘어나는 등 매년 길어지는 추세다.

이혼 부부 중 혼인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비중은 28.7%로 가장 많았다. 2011년까지 결혼한 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2년부터 20년 이상 된 부부의 비중이 가장 컸다. 특히 혼인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 이혼'이 1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10.1% 늘어났다. 2012년에는 8.8%, 2013년에는 8.4%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커졌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3배로 증가했다.

남자 이혼자의 연령은 40대 초반과 40대 후반이 각각 18.8%로 가장 높고 50대 초반이 15.6%였다. '황혼 이혼'의 증가세에 따라 50대 후반과 60세 이상의 이혼건수가 각각 7.0%, 7.3%로 크게 늘어났다. /연합뉴스



영산강 환경사랑 띠 엮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3일 광주시 남구 승촌보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영산강 환경사랑 띠 엮기' 행사를 열고 주변 정화활동을 펼쳤다.

국민연금 일시금 5년 지나면 못찾아

소멸시효 지난 연금 5년간 33억원...5월부터 지급내역서에 안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지급 소멸시효 장치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직역연금에도 있으며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비슷한 소멸제도를 두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라섹 ICL SMILE

LASIK LASEK 안내렌즈삽입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운암동 방면
밝은광주안과 의원

[가칭]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
제2015-042호

2015. 5. 12. 창립총회

2015년도 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가칭)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에서는 주택법 및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전체 조합원(계약자)에게 개별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 조합원(계약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하오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5년 5월 12일(화) 오후6시
2. 장소 : 김대중 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2,3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치평동 1159-2)]
3. 참석대상 :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 (대리인은 위임장 및 조합원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자에 한 함)
4. 총회 안건
 - 제1호 안건 : 조합규약 제정의 건
 - 제2호 안건 : 사업시행계획 동의의 건
 - 제3호 안건 : 시공예정사 선정의 건
 - 제4호 안건 :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위임의 건
 - 제5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건
 - 제6호 안건 : 조합 임원 선임의 건
 - 제7호 안건 :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 제8호 안건 : 추진위원회 기 추진업무 추진의 건
 - 제9호 안건 :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이행확약 추진의 건
5. 총회참석시 지참물 및 구비서류
 - 1) 본인 참석시 : ①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본인 도장 ③총회책자
 - 2) 대리인 참석시 : ①총회참석 위임장(조합원 인감도장날인) ②조합원 인감증명서 1통 (용도:총회참석위임용) ③대리인 신분증 ④대리인 도장 ⑤조합원과의 관계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자격: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인
- 3) 총회장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서면결의서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총회 전일까지 (2015년 5월 11일 18:00시까지) 조합사무실(주택조합관리)로 직접 방문, 우편 등 또는 총회 홍보요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면결의서 개요 :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접수된 서면결의서를 사전검토 및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4일
(가칭)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180-1번지
TEL : (062)571-5993 / FAX : (062)575-5994